판결·처분으로 확인하는 사건의 결과

# 하자 피해를 돈으로 묻다.
# 배상 권고액 4,000만 원.

## 4,000만 원 지급 결정

법원 결정

공사 하자 손해배상 · 화해권고결정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을 지급하되, 이를 아래와 같이 분할하여 지급한다.

   가. 2023. 9. 15.까지 20,000,000원

   나. 2023. 10. 31.까지 20,000,000원

2. 만일 피고가 위 분할금의 지급을 1회라도 지체하는 경우 피고는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원고에게 미지급금액 전부를 일시에 지급하되, 분할 및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날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원고와 피고는,

   지급 공사대금 및 4대 보험료도 고려하여 제1항 기재 금액이 결정되었음을 확인하고,

   여 위 제1, 2항에서 정한 것 이외에는 아무런 채권·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서로 확인한다.

5.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 01 이런 상황에서 해율을 찾았습니다

공사의 하자로 인한 손해를 배상받기 위해 청구한 사건입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는 회수의 길이, 지급을 요구받은 사람에게는 책임의 범위가 절실합니다.

상대방이 제시한 액수만으로 모든 판단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 근거와 실제 결과를 나누어 보아야 합니다.

## 02 의뢰인에게 중요한 문제

얼마를 언제 지급하는지, 어느 범위까지 책임지는지에 따라 의뢰인의 부담은 달라집니다. 분할 지급이나 담보, 추가 청구에 관한 조건이 있다면 금액과 함께 읽어야 합니다.

법원의 결정과 실제 입금도 서로 다른 단계입니다. 이 사건에서 확인할 결과는 4,000만 원 지급 결정입니다. 지금의 분쟁에서 이 결과가 어떤 부담을 줄이거나 어떤 권리를 지켰는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자 피해를 돈으로 묻다.**

**해율은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견적서와 실제 청구액이 달라 정산이 막혔다면
- 매장 하자를 고치면서 손해배상도 받아야 한다면
- 공사대금 소송에 상대방의 손해배상 반소까지 붙었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

## 03 해율과 함께 얻은 결과

법무법인 해율은 이 사건에서 의뢰인의 소송대리를 맡았습니다. 4,000만 원 지급을 정한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의신청이 있었으므로 확정된 배상금이나 실제 수령액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화해권고결정은 법원이 제시한 분쟁 해결 내용입니다. 결정에는 금전 지급과 나머지 청구를 정리하는 구체적인 조건이 담겼습니다. 지급 범위와 함께 나머지 청구의 처리, 결정에 붙은 조건을 같이 살펴야 합니다.

## 04 당신의 상황과 나란히 보십시오

받아야 할 돈을 받을 길로 연결하고, 책임져야 할 범위를 분명히 하는 일은 의뢰인의 생활과 직결됩니다. 이번 사례에서는 그에 필요한 조건과 절차가 실제 결과로 남았습니다.

비슷한 돈 문제라면 현재 가진 자료와 절차부터 살펴보아야 합니다. 마주한 문제가 같아 보여도 계약과 증거, 절차에 따라 필요한 대응은 달라집니다.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지, 지금 가능한 주장은 무엇인지 해율과 함께 짚어보십시오.

잘할 수 있다는 변호사는 많습니다.

**해율은 이미 해낸 결과로 답합니다.**

**해율은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받았습니다.**

- 구두로 합의한 작업 때문에 금전 분쟁이 생겼다면
- 공사 관련 지급액과 시기를 함께 정해야 한다면
- 공사대금과 손해배상 청구를 구분해야 한다면

**결과를 만들어낸 해율에 맡기십시오.**
**이제 당신의 편에서 싸우겠습니다.**